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특성*

박 윤 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언어치료전공 석사)

황 민 아***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 가 림****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수)

〈요 약〉

연구목적: 어휘력 발달에서 형태소 인식은 어휘지식을 확장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우리말 어휘는 약 70%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고, 한자는 한 음절이 의미를 갖는 형태소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형태적 구조를 분석하고, 한자 접두사의 의미를 파악한다면 깊이 있는 어휘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말 어휘의 형태적 구성의 하나인 한자접두사 이해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각 20명씩 총 60명이다.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 61종의 한자접두사를 사용하여 ‘반대의미 한자접두사 판단’ 과제와 ‘다른의미 한자접두사 판단’ 과제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자접두사 이해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두 과제에서 학년별 수행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하게 높은 한자접두사 이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초등 3학년 집단에서 평균 정답률이 모두 50% 미만이었다. 이를 통해 초등 저학년은 아직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능력이 발달 전 단계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발달적 양상에서는 초등 5학년과 중등 1학년의 수행 차이보다 초등 3학년과 초등 5학년 집단의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자접두사의 이해 능력이 집중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는 우리말 어휘의 토대가 되는 한자어의 주요 구성 형태인 한자접두사의 이해에 대해 집단 간의 발달적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어휘력 학습에 있어 형태소 인식 능력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자접두사 교육에 있어 초3 ~ 중1이라는 시기적 중요성과 접두사의 적절한 교육 시기 및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자어, 한자접두사,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형태소 인식, 어휘력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제 1저자

*** 제 2저자

**** 교신저자(slprim@dankook.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말 어휘의 약 70%는 한자어(漢字語)이다. 한자어는 각각의 의미를 지닌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루기 때문에, 어휘 안에서 형태소가 결합한 구조를 이해하고, 동시에 각 형태소가 갖는 의미를 통합하는 능력이 곧 어휘력(vocabulary)이 된다. 어휘력은 학령기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Cook, 1994). Chall(1996)이 정립한 읽기발달단계(Chall's Stages of reading)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은 초등 고학년부터 학습을 위한 읽기(read to learn)가 시작되면서 읽기이해능력이 학습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때 읽기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바로 어휘력이다(김애화, 황민아, 2008; 박선희, 김애화, 2018). 적절한 어휘력의 발달을 이루어 내지 못한 아동들의 경우 저학년 때부터 어휘력의 지체가 관찰되고 빈약한 어휘력은 결국 읽기이해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정부자, 2011, 고선희, 2020).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는 형태소 인식 능력으로 한자어를 습득할 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령기 아동이 학습에서 직면하는 어휘의 양이나 다양성은 학령 전기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진수경, 김희수, 2021). 학령기 아동은 의미를 잘 모르는 단어를 형태소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뜻을 추론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습득해 나간다(주은지, 황민아, 최경순, 2020). 즉 문장이나 글 속의 복합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적 관계를 파악한 다음 전체 의미를 처리하게 되는데(Nicoladis, 2002),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형태소 인식 능력이다. 형태소 인식 능력은 단어 내에 있는 형태소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조작할 때 발생하는 메타언어 인식 능력을 말한다(Apel & Apel, 2013). 아동의 형태소 인식 능력은 초등 1~3학년까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고, 초등 후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Berninger et al., 2020). 특히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파생어에 대한 형태소 인식 능력은 학령기 이후인 청소년기까지 발달이 지속된다(McBride-Chang et al., 2005).

우리말은 형태소가 풍부한 언어이다. 우리말 어휘를 익힐 때 형태소 인식 능력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말 어휘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어휘의 비중은 한자어(57.12%), 고유어(25.28%), 한자어+고유어(8.28%), 외래어(5.26%), 한자어+외래어(3.53%), 한자어+외래어+고유어(0.17%) 순으로(국립국어연구원, 1999), 한자어를 포함한 어휘 유형은 전체 어휘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자어는 한자(漢字)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로(국립국어연구원, 1999) '의미'를 가진 각 글자가 서로 결합하고 파생해 수많은 어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한글은 표음문자(表音文字)로 분류되지만, 한자의 영향으로 70%가 표의문자(表意文字)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자어를 학습할 때는 각 음(音)이 가진 '뜻'을 인지하는 의미론적

발달이 요구된다. 동시에 한자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형태소로 구성되기 때문에(김정은, 1998), 한자어 학습 시에는 의미론적 발달과 더불어 형태론적 발달 또한 요구된다. 우리말 한자어는 크게 단일어(單一語), 합성어(合成語), 파생어(派生語)로 나눌 수 있다. 단일어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 1음절 단일어(예: 산(山), 강(江), 책(冊))과 비(非)일음절 단일어(예: 포도(葡萄), 석류(石榴), 모순(矛盾))로 구분할 수 있다. 합성어는 한자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인데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을 뜻하며 대부분 2음절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로 단어의 어기(語基)에 접두사(接頭辭)가 붙은 접두파생어와 단어의 어기에 접미사(接尾辭)가 붙은 접미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어휘의 형태소 인식을 뒷받침하는 한자접두사의 의미이해 능력은 학령기 전반에 걸쳐 발달한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초등교과서에는 다양한 한자접두사를 포함한 접두파생어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김한샘, 2009)에 따르면 초등교과서에 사용된 한자접두사는 총 53종이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정한 한자접두사(97개)의 약 54%에 해당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어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초등교과서에 등장하는 한자 접두파생어는 총 209종, 총 출현 횟수는 1,083회이다. 학년별 출현 비중을 살펴보면 초등 저학년이 12.9%, 초등 고학년이 87.1%로 고학년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동의 어휘 지식에 접두파생어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교과서에 접두파생어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적극적인 학습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표 1>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의 접두파생어(국립국어원, 2009)

한자 접두사	접두 파생어	학년별 접두파생어 출현 횟수						총 출현 횟수
		저학년				고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53종	209종	40회	32회	68회	212회	322회	409회	1,083회 (100%)
		(3.7%)	(3.0%)	(6.3%)	(19.6%)	(29.7%)	(37.8%)	
		12.9%				87.1%		

형태소 인식과 어휘 능력의 관계, 형태소 인식과 읽기 능력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정경희(2020)는 학령기 1, 3, 5학년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단어 유형에 따른 형태소 인식 능력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연구에서 형태소 인식은 학년에 따라 수행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형태인식 능력이 어휘 능력의 주요 예측 변인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배성봉 외(2016)는 형태소 인식력에 따른 단어 학습 수행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실험을 통해 형태소 인식

력이 높은 참가자들이 형태소 인식력이 낮은 참가자들에 비해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추론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선아, 최소영(2018)은 초등학교 고학년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형태소 인식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파생어 과제를 시행하였고,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이 어근과 접사에 대한 형태론적 지식 발달이 지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는 형태소 인식 능력과 어휘력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뒷받침한다.

더 나아가 형태소 인식 능력과 읽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정경희(2020)는 한국어를 바탕으로 제작된 파생어 형태인식 검사를 활용하여 형태인식이 읽기 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어휘력은 부분 매개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읽기이해와 형태소 인식 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은지 외(202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형태소 처리 양상을 살펴보고,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형태소 인식 능력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한자합성어의 이해를 알아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었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맥락을 활용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며,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한자 합성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이유리, 최소영, 2022).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형태소 인식 능력을 확인하여 해독 및 읽기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정경희, 2014).

형태소 인식과 한자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박영주, 이선웅(2020)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 한자 형태소 감수성(한자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형태소를 분리하여 인지하고, 분리된 형태소의 의미를 추측하는 능력)과 한자어 어휘력 간에는 뚜렷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한자어의 형태소를 분리해서 인지하고 의미를 추측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한자어 어휘력이 높기 때문에 한자 형태소에 초점을 맞춘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박혜진(2021)은 한자어는 형태소로서, 그리고 단어 형성 요소로서 ‘비전형성, 다기능성’ 가지고 있으며, 단어 형성 교육 시 한자어를 활용 방법의 하나로 한자어 접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어 습득 방법의 하나로 접사를 우선 단독으로 인식하게 한 뒤, 접사가 포함된 단어들로 인식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이용해 단어의 형성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박영주, 이선웅(2020)과 박혜진(2021)의 연구는 한자어 비중이 높은 우리말 어휘의 특성상 질적 어휘력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형태소 인식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어휘력 향상이 필수적인 시기인 학령기,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태소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자 형태소의 한 갈래인 한자접두사는 한 음절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두 음절 이상의 자립적 어기(어근, 어간) 앞에 놓인다. 이 때문에 학습자가 접두사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형태소로서 접두사를 인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한자접두사는 한자어 이외에 고유어나 외래어와도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이 가능한 높은 생산성을 지녔으며 결합에 있어서 특별한 제약이 없다. 이는 양

적 어휘 지식의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접두사는 뒤에 결합하는 어기의 의미를 한정한다. 따라서 한자접두사의 의미를 이해하면 어휘 전체의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지고, 이는 질적 어휘 지식의 확장을 촉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어휘 발달에 있어 한자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접사의 이해와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자어를 구성하는 여러 형태소 유형 중 접두파생어의 한자접두사의 의미이해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선행 연구의 대다수가 형태소 인식 능력과 어휘력 또는 읽기이해 능력 간의 관계성, 그리고 어휘의 형태론적 발달이 아동의 읽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 한자어 관련 연구는 파생어보다 합성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아동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한자접두사 의미이해’라는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반대의미 한자접두사 의미 판단 과제’와 ‘다른의미 한자접두사 의미 판단 과제’와 같은 의미론적 발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함으로써 어휘학습에 있어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더불어 집단 간 발달적 차이 분석을 통해 ‘한자접두사 교육의 적절한 시기’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선행 연구의 방향을 확장하고, 향후 한자 접두사 교육 전략 수립에 기초 연구가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초등 3학년, 초등 5학년, 중등 1학년 집단 간 한자접두사 의미 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 첫째, 반대의미 한자접두사 의미 판단 과제에서 학년(초3, 초5, 중1)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다른의미 한자접두사 의미 판단 과제에서 학년(초3, 초5, 중1)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20명, 5학년 20명, 중학교 1학년 20명, 총 6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이처럼 선정한 이유는 학습을 위한 읽기(reading to learn)가 본격화되는 초등 고학년(4~6학년) 시기를 전후로 한자접두사 이해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의 김한샘(2009)이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에 포함된 한자접두사 출현 비

중을 분석한 결과 1~3학년이 12.9%, 4~6학년 87.1%로 고학년 교과서에 출현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등 고학년이 한자점두사 이해력 발달의 주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1) 부모와 교사의 보고에 신체, 행동, 정서상의 문제가 없는 학생 중에서 (2) 교육부 시행 기초학력 진단평가 대비 EBS 2023 기초학력 진단평가 국어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교육부가 지정한 도달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상세 정보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초3 (n=20)		초5 (n=20)		중1 (n=20)		총계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성별	남	8	40%	10	50%	8	40%	26	43.3%
	여	12	60%	10	50%	12	60%	34	56.7%

<표 3> 연구 참여자의 생활연령 및 진단평가 결과

	학년						<i>F</i>	<i>p</i>
	초3 (n=20)		초5 (n=20)		중1 (n=20)			
	<i>M</i>	<i>SD</i>	<i>M</i>	<i>SD</i>	<i>M</i>	<i>SD</i>		
생활연령 (개월)	106.00	3.78	130.45	3.84	155.45	3.60	869.111***	.000
진단평가 (국어)	82.60	2.19	81.80	11.19	89.75	6.30	2.663	.072

*** $p < .001$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생활연령은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국어 과목 진단평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663$, $p=0.072$). 진단평가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초3 평균 82.6점, 초5 평균 81.80, 중1 평균 84.71점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한 국어 과목 도달점수 기준 초3, 초5 56점, 중1 63점 기준 대비 크게 높은 결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 전원이 실험 참여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97종의 접두사 목록 중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전 과목에 출현하는 한자접두사를 포함한 명사 어휘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1) 한자접두사의 선정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한자접두사는 총 97종으로 그중에서 국립국어원의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조사연구』에 수록된 어휘에 출현한 한자접두사 51종과 『보리국어사전』(남영신, 2022)에 출현하는 29종을 더하여 총 80종의 한자 접두사를 실험용 과제 목록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80종의 한자접두사를 포함한 접두파생어는 ‘한자접두사+한자어’, ‘한자접두사+고유어’, ‘한자접두사+외래어’ 구조를 갖는 명사형 어휘로 한정하고,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조사연구』와 『보리국어사전』에서 총 392개 어휘를 1차로 수집하였다. 그다음 김광해(2003)의 등급별 어휘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해당하는 1, 2등급 어휘 13개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의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의 4,300만 어절 중 어휘 빈도에서 100 이하(백만 당 1 미만) 저빈도 어휘(서상규, 1998)에 해당하는 127개를 제외하여 최종 61개 접두사를 포함한 262개 어휘를 과제 제작용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실험용 과제에는 61종 접두사를 포함한 203개 어휘가 사용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반대의미 한자접두사 의미 판단 과제’에는 총 30종 한자접두사를 포함한 56개 어휘를 사용했으며, ‘다른의미 한자 접두사 의미 판단 과제’에는 총 52종 한자접두사를 포함한 151개 어휘를 사용하였다. 과제에 사용된 한자접두사는 <표 4>와 같다.

<표 4> 과제에 사용된 한자접두사 목록 (61종)

가(假), 강(強), 경(輕), 고(高), 고(古), 공(空), 구(舊), 급(急), 과(過), 극(極), 귀(貴), 남(男), 내(內), 냉(冷), 다(多), 단(單), 대(大), 대(對), 무(無), 몰(沒), 명(名), 미(未), 맹(猛), 반(半), 반(反), 복(複), 범(汎), 부(不), 부(副), 비(非), 백(白), 선(先), 소(小), 수(數), 시(嫻), 신(新), 실(實), 생(生), 약(弱), 양(洋), 여(女), 역(逆), 연(軟), 유(有), 왕(王), 외(外), 원(原), 장(長), 저(低), 정(正), 준(準), 중(重), 재(再), 진(眞), 초(初), 초(超), 총(總), 친(親), 최(最), 탈(脫), 폐(廢)
--

2) 과제 제작

과제는 연구 참여자의 한자접두사의 의미이해 정확도를 다각도에서 검증하기 위해 2종 유형의 소검사, 총 8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반대의미 한자접두사 의미 판단 과제(이하 반대의미 판단 과제)’이며, 주어진 두 개의 어휘의 접두사 부분의 의미만 파악하여 접두사의 의미가 서로 반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이다. 두 번째 과제는 ‘다른의미 한자접두사 의미 판단 과제(이

하 다른의미 판단 과제)’이며, 주어진 네 개의 어휘 중 접두사의 의미가 다른 한 개의 어휘를 찾아 내는 과제이다.

모든 과제는 비대면(Zoom)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두로 답을 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첫 번째 ‘반대의미 판단 과제’는 총 37개의 ‘네, 아니오’ 문항으로 제작하였는데, 주어진 두 개 어휘에 밑줄 친 접두사의 의미가 서로 반대 관계이면 ‘네’, 반대 관계가 아니면 ‘아니오’로 답하도록 설계하였다. ‘네, 아니오’ 정답 비중은 ‘네’ 19개, ‘아니오’ 18개로 절반씩 구성하였고, 모든 문항에 대한 원점수를 결과 분석에 반영하였다. 두 번째 ‘다른의미 판단 과제’는 총 50문항의 4지 선다형 객관식 문항으로 제작하였는데, 주어진 4개 어휘의 밑줄 친 접두사의 의미를 파악해서 다르게 쓰인 한 가지 어휘를 찾아내도록 설계하였으며, 정답은 보기 ①~④까지 고르게 배분하였다. 또한 모든 문항은 무선 배치하였다. 과제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대의미 판단과제

본 유형은 연구 참여자가 주어진 두 개의 어휘를 보고 각각의 접두사의 의미를 분리해 의미관계가 서로 반대인지 판단하도록 설계된 과제다. 본 유형은 목표한 접두사와 뜻은 다르지만 동일한 음(音)을 가진 동음이의(同音異義) 접두사를 활용해 문항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학생은 주어진 두 단어의 형태소를 각각 분리하여 접두사의 의미를 비교하는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 <표 5>의 3번 문항과 같이 ‘정방향 = 정(바른) + 방향’, ‘반평생 = 반(절반) + 평생’이라고 형태소를 분리하여 의미를 파악한 뒤, ‘바른’과 ‘절반’의 의미를 비교하여 의미관계가 반대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학생이 단순히 밑줄 친 글자만 비교해 답을 추측한다면 ‘정방향’의 ‘정(正, 바른)’에서 힌트를 얻어 ‘반평생’의 ‘반(半)’을 ‘반(反, 돌아올)’으로 오판할 수 있다. 본 유형을 통해 주어진 어휘 안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한자접두사의 의미를 파악하는지 그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5> 반대의미 판단 과제 문항 예시

지시문 : 밑줄 친 두 부분이 서로 반대의미인가요? 네 / 아니오

문항	문항	정답	활용 접두사
3	정방향 - 반평생	아니오	정(正), 반(半)
9	외삼촌 - 친할아버지	네	외(外), 친(親)

(2) 다른의미 판단과제

본 과제는 연구 참여자가 보기 ①~④까지 총 4개 어휘의 접두사를 비교한 뒤, 의미가 다른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과제는 ‘반대의미 판단 과제’와 동일하게 동음이의 접두사를 활용하여 문항을 제작하였지만, 문항당 동시에 4개 어휘의 접두사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각각의 의미를

모두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미 판단 과제’ 대비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차이점이 있다. 본 과제의 예시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다른의미 판단 과제 문항 예시

지시문 : 밑줄 친 부분이 다른 의미로 쓰인 1개를 찾아 보기의 번호를 말하세요.

문항	보기①	보기②	보기③	보기④	정답	활용 접두사
6	반평생	반작용	반바지	반만년	반작용	반(反), 반(半)
14	고품질	고혈압	고학년	고문서	고문서	고(高), 고(古)

(3) 연구과제의 타당도

위와 같이 제작된 과제 문항은 언어치료 전공 교수 1인과 검토 후 난이도 및 내용 적절성을 평가받기 위해 6인의 전문가(집단별 각 2명)에게 설문 형식의 평가지를 송부해 과제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초3은 현직 초등교사 2인, 초5는 현직 초등교사 1인과 초등국어 교육 전문가 1인, 중3은 중등 국어교육 전문가 2인에게 의뢰하였다. 문항별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1: 매우 쉬움, 2: 쉬움, 3: 적절함, 4: 어려움, 5: 매우 어려움)로 평정하였으며, 내용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평가 의견을 평가자가 직접 서술하여 기록하도록 설계하였다. 타당도 결과지 분석을 통해 초등 3학년 대상 ‘매우 쉬움’ 결과를 받은 3개 문항과 중등 1학년 대상 ‘매우 어려움’ 결과를 받은 4개 문항, 그리고 출제 의도와 다른 오답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2개 문항은 최종 과제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60명의 학생은 연구모집 안내를 읽고 참여를 희망한 학생이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학생의 보호자와 사전 연락을 통해 참여 동의를 구한 뒤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검사자와 참여자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고, 전원 비대면(Zoom 플랫폼) 방식을 활용하여 구두 평가로 진행하였다. 과제 수행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는 최수진, 조은하, 성지은(2021)과 신준영 외(2022)에서 대면 방식과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또한 본 연구 참여자는 COVID-19 시대를 겪으면서 원격 소통에 익숙해진 세대로, 연구 방식(대면/비대면)에 따른 결과값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예비 연구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학생 정보(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학교명, 학년)를 확인하고, 안내 사항(평가 순서, 소요 시간, 풀이 방식, 퇴장)을 전달한 뒤 쉬는 시간 없이 실시하였다. 과제별로 각 2개의 연습 문제를 풀고 난 뒤 본 문항을 실시하였으며, 연습 문제 1번 문항은 연구자가 문제 유형을 설명한 뒤 답을 알려주고, 2번 문항은 참여자가 직접 풀어보게 하여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연습 문제 2번에서 오답을 말하거나 문

제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연습 문제 1번으로 돌아가 한 차례에만 추가 설명을 진행한 뒤 본 문항 풀이를 시작하였다. 모든 문항은 참여자가 답을 구두로 말한 뒤 검사자가 즉각 검사지에 답을 표시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평균 약 30~40분이 소요되었다. 평가가 진행된 전체 과정은 Zoom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하는 화면 기록 기능을 사용하여 녹화하였다.

(1) 예비 연구

예비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9명의 학생(초3 3명, 초5 3명, 중1 3명)에게 비대면(Zoom 플랫폼)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평가 문항과 연구 환경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평가 문항의 적절성은 연구에 활용한 점두사와 어휘에 대한 난이도와 친숙도를 평가하고, 예상치 못한 의미 해석 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평가 결과 점두사 갈(渴), 건(乾), 연(連), 잡(雜), 정(正), 종(從), 재(在), 피(被), 항(抗), 호(胡)는 난이도와 친숙도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용 과제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3개 집단에서 공통으로 다수의 오반응이 나온 대(大)장부, 건(乾)어물, 초(超)만원, 부(不)조리를 포함한 12개 어휘를 연구용 과제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환경에 대한 점검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 기기, 접속 방법,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화면 설정, 영상 녹화 등에 대한 세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사전 점검 결과, 참여자가 사용하는 기기 중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는 사용 가능하나, 스마트폰은 가독성을 고려해 사용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시간은 국어 진단 평가를 포함하여 초3은 약 40분, 초5와 중1은 약 30분으로 소요되었으며, 이는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학년의 참여자가 집중력을 유지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하여 문항 수 조정은 하지 않았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연구자와 학생이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비대면(Zoom)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한 화면에 한 문항씩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설계하였으며, 문항을 보여주고 학생이 구두로 답을 말하면 연구자가 준비한 검사지에 수기로 기록한 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 과정은 예비 연구와 마찬가지로 Zoom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영상기록 기능을 사용하여 녹화하였으며, 화면에는 과제 문항, 연구자 얼굴, 참여자 얼굴이 보이도록 세팅하였다.

4) 연구 준비

본 연구 진행 당일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온라인 연구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 끊김, 카메라 또는 스피커 연결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컴퓨터 및 Zoom 프로그램 조작이 능숙한 것을 확인하였고,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 참여자 단독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 전체가 녹화될 예정이며, 연구 종료 후 전체 파일을 폐

기한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5) 연구 진행

연구 기간은 2023년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 각자의 조용한 공간에서 1:1로 진행하였으며, 연구는 1)학생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학교, 학년), 2)평가 진행 안내, 3)반대의미 판단 과제, 4)다른의미 판단 과제, 5)국어 진단평가 순이었다. 과제 유형별로 각 2개의 연습 문항을 실시하여 학생이 충분히 과제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문항 시작 후엔 연구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반대의미 판단 과제	다른의미 판단 과제

〈그림 1〉 Zoom 화면 예시

2.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1) 채점

연구를 통해 수집된 검사 결과지는 검사자가 1차 채점하였다. 정반응한 문항은 1점, 오반응 또는 ‘모른다’라고 응답한 문항은 0점으로 채점하였다. 반대의미 과제의 총점은 37점이며, 다른의미 과제의 총점은 50점이다.

2) 신뢰도

본 연구자가 1차 채점하고,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두 명의 평가자에게 전체 평가지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녹화영상을 제공하고 채점을 의뢰하였다. 채점은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채점하며, 채점이 일치된 문항 수를 전체 문항 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여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와 평가자 간 신뢰도는 100%를 보였다.

3) 통계처리

수집된 데이터는 SPSS windows 25.0(IBM SPSS Statistics Data Editor)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초3, 초5, 중1 집단의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능력의 차이를 보기 위해 실시한 첫 번째 반대어미 판단 과제와 두 번째 다른어미 판단 과제의 결과는 각각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사후검정(Turkey Post-Hoc Test)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반대어미 한자접두사 의미 판단 과제 수행 결과

집단별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반대어미 판단 과제’의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는 <표 7>과 같다.

<표 7> 반대어미 판단 과제 점수

구분		참여자 수	평균(총점 37)	표준편차
집단 (n=60)	초3(a)	20	18.15	4.37
	초5(b)	20	27.40	3.51
	중1(c)	20	31.00	3.54

세 집단의 과제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집단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56.96$, $p<.001$). 사후검정(Turkey Post-Hoc Test)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중1의 평균 점수는

<표 8> 반대어미 판단 과제 일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Turkey
집단	1757.633	2	878.817			
오차	879.35	57	15.427	56.96	.000***	c>b>a
전체	2636.983	59				

*** $p<.001$

31.00으로 초5의 평균 점수 27.40, 초3의 평균 점수 18.15 대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한자접두사 이해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른의미 한자접두사 의미 판단 과제 수행 결과

집단별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다른의미 판단 과제’의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는 <표 9>와 같다.

<표 9> 다른의미 판단 과제 점수

구분		참여자 수	평균(총점 50)	표준편차
집단 (n=60)	초3(a)	20	22.60	3.32
	초5(b)	20	33.60	3.38
	중1(c)	20	39.00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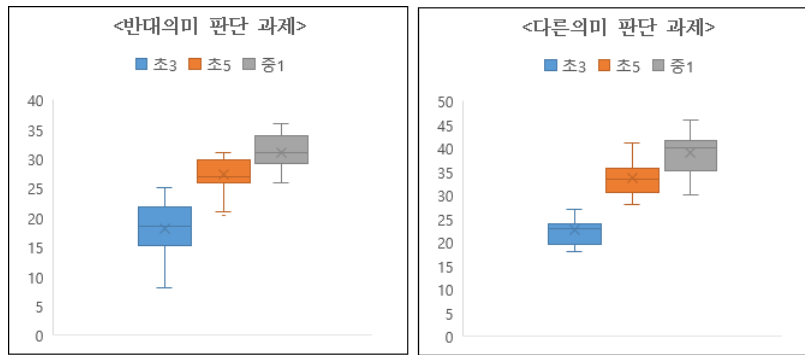
세 집단의 과제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다른의미 판단 과제 일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Turkey
집단	2794.133	2	1397.07			
오차	767.6	57	13.467	103.74	.000***	c>b>a
전체	3561.733	59				

*** $p < .001$

분석 결과, 집단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03.74$, $p<.001$). 사후검정(Turkey Post-Hoc Test)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1의 평균 점수는 39.00으로 초5의 평균 점수 33.60과 초3의 평균 점수 22.60 대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반대의미 판단 과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한자접두사 의미를 변별하는 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 과제별 평균 수행 점수 비교

이처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2종 유형의 과제를 통해 집단 간 수행력은 통계적으로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한자접두사의 의미이해 능력의 발달적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초3, 초5, 중1 총 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자접두사를 활용한 두 가지 과제를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반대 의미 판단 과제’와 ‘다른 의미 판단 과제’의 집단 간 평균 점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학년일수록 상대적으로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과제의 수행 결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초3 집단의 수행을 살펴보면 ‘반대 의미 판단 과제’에서 원점수 18.15(정답률 49%), ‘다른 의미 판단 과제’에서 원점수 22.60(정답률 45.2%)로 정답률이 과반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초3 집단의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능력이 ‘발달 전(前) 단계’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초5 집단의 수행을 살펴보면 ‘반대 의미 판단 과제’에서 원점수 27.4(정답률 74%), ‘다른 의미 판단 과제’에서 원점수 33.60(정답률 67.2%)로 초3 대비 큰 차이가 나타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1 집단은 ‘반대 의미 판단 과제’에서 원점수 31(정답률 83.7%), ‘다른 의미 판단 과제’에서 원점수 39(정답률 78%)로 초3과 초5의 차이보다 작게 나타났다. 초5와 중1보다 초3과 초5의 집단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점은 초5~중1 시기보다, 초3~초5 시기에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능력을 더욱 집중적으로 발달시킨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초3~초5 시기는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즉 초3~초5 시기가 바로 ‘읽기를 배우는 단계(learn to read)’를 끝내고 ‘배우기 위해 읽는 단계(read to learn)’이

며, 아동은 초등 고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어휘의 양적 성장(vocabulary size)과 질적 성장(depth of vocabulary knowledge)을 이루고 이를 통해 읽기이해 기틀을 마련한다. 동시에 다가오는 중학 시기에 갖추어야 할 읽기 기술인 사실적, 비판적, 추론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는 기초를 쌓는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말의 약 70%가 한자어이며, 접두사의 의미이해가 전체 어휘의 의미 파악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 한자어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 동시에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능력의 발달을 촉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높은 학년일수록 상대적으로 한자접두사의 의미이해 능력이 높게 나타난 점은 고학년이 될수록 어휘 지식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사고를 통한 의미 해석을 진행하기 때 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한자어 접두파생어의 접두사 의미이해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동이 어휘력을 발달시킬 때 형태론적 발달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발달 을 동시에 이루어 낸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단어 내 형태소 단서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그 의미를 추론하는 어휘 학습 전략은 학령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발달하며(Gibson & Wolter, 2015), 어휘의 형태적 구조를 분석하여 의미를 추론하는 학습법은 정의법, 문맥 접근법(구본관 외, 2014)과 더불어 어휘학습 방식에 있어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방법의 하나다(Crosson et al, 2021). 학습자는 단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형태소 인식 능력을 활용하여 합성, 파생, 혼성, 어근 변화 등의 방법을 통해 어휘를 이해하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 학습자가 형태소의 분리와 합성을 통해 어휘 생성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이를 기반으로 읽기 성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말 어휘의 형태론적 발달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동시에 한자접두사, 더 나아가 한자어를 이루는 각 형태소의 의미를 적절히 이해한다면 이는 어휘지식 확장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자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인 ‘접두파생어’ 중 접두사의 의미이해에 대한 발달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초3, 초5, 중1 학생의 한자접두사 의미이해 능력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본 검사를 EBS 온라인 국어 과목 진단평가로 진행하여 학생의 양적, 질적 어휘력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이다. 이는 참여자가 기본적인 국어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선정한 검사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보고된 어휘력과 비교하여 한자접두사 이해 및 형태소 인식 능력을 살펴본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 특히 제한된 어휘력으로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아동, 자신의 학년 수준에 걸맞은 읽기 이해에 어려움이 있거나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휘력이 걸림돌이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어휘 교수를 제공할 때 참고할 만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한자접두사 중 집단별로 정답률이 50% 이상인 문항에 쓰인 접두사를 목록화하여 다음과 같이 접두사에 대한 단계별 학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1단계는 초3, 초5, 중1 모든 집단에서 정답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난 한자접두사 30개이며 이는 ‘외(外), 친(親), 순(順), 역(逆), 시(媳), 신(新), 구(舊), 수(數), 급(急), 왕(王), 과(過), 초(初), 미(未), 최(最), 냉(冷), 소(小), 진(眞), 백(白) 재(再), 원(原), 장(長), 대(大), 정(正), 준(準) 최(最), 고(高), 저(低), 남(男), 여(女)’가 있다. 2단계는 초5와 중1 집단에서 정답률 50% 이상으로 나타난 한자접두사 20개이며 ‘부(不), 불(不), 내(內), 맹(猛), 명(名), 총(銃), 범(汎), 연(軟), 생(生), 선(先), 귀(貴), 강(強) 폐(廢), 양(洋), 반(反), 유(有), 무(無), 비(非), 극(極), 다(多)’가 있다. 3단계는 중1 집단에서만 정답률 50% 이상으로 나타난 한자접두사이며 ‘가(假), 진(眞), 단(單), 몰(沒), 공(空), 경(輕), 중(重), 복(複), 고(古)’가 있다. 지도하는 대상자의 학년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교수할 한자접두사의 목록과 순서를 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반대의미 한자 접두사 의미 판단하기와 다른의미 접두사 의미 판단하기 과제의 유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미 접근 방법으로 지도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어휘력의 기본은 형태소 인식 능력이며, 우리말 한자어의 구조와 조어(造語) 특성을 고려할 때 한자어 습득의 관건은 한자어의 형태소 구조를 파악하고 각 형태소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접두파생어의 경우 접두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접두사와 결합한 수많은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휘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현장에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말 한자어를 지도할 때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선희 (2020). 읽기이해부진 학생을 위한 읽기중재 연구 동향. 특수교육논총, 36(2), 1-24.
- 구본관, 신명선, 서혁, 이도영, 민병곤 외 (2014). 어휘 교육론. 서울: 사회평론.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 동아.
- 김광해 (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경기: 박이정.
- 김선아, 최소영 (2018). 초등학교 고학년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형태소인식 능력. 언어치료연구, 27(4), 19-30.
- 김애화, 황민아 (2008). 초등학교 고학년의 읽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3(1), 1-25.
- 김정은 (1998). 한자어의 단어형성법 연구. 국어국문학, 121, 75-96.
- 김한샘 (2009).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조사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남영신 (2022). *보리국어사전*. 경기: 도서출판보리.
- 박선희, 김애화 (2018). 문맥 활용 전략을 적용한 어휘교수가 읽기부진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34(2), 211-237.
- 박영주, 이선웅 (2020). 한자 형태소 감수성을 통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어 교육 연구. *우리말 글*, 87, 247-279.
- 박혜진 (2021). 단어 형성 교육을 위한 한자어 문제 고찰. *국어교육연구*, 75, 19-56.
- 배성봉, 이광오, 마스다, 히사시 (2016). 새로운 단어의 학습에서 형태소 처리의 영향. *인지과학*, 27(2), 303-323.
- 서상규 (1998).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신준영, 김주은, 송지수, 조재은, 최수진, 이영미, 성지은 (2023).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형에 따른 청년층 및 중노년층 간 동사 이름대기 수행력 비교.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8(1), 97-110.
- 이유리, 최소영 (2022).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문장 맥락을 활용한 한자 합성어 이해 특성. *특수교육논총*, 38(4), 99-115.
- 정경희 (2014). 1-3학년 학령기 아동의 형태소인식과 읽기능력.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9(1), 21-30.
- 정경희 (2020). 학령기 아동의 형태소인식과 어휘능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411-426.
- 정부자 (2011).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부진아동의 읽기능력 및 읽기관련변인에 대한 종단연구. *언어 치료연구*, 20(1), 103-121.
- 주은지, 황민아, 최경순 (2020). 읽기이해부진아동의 복합어에서 형태소 처리 특성: 집화효과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4(4), 81-96.
- 진수경, 김화수 (2021). 학령기 아동의 형태소 인식 능력에 관한 연구 동향.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학술대회*, 76-78.
- 최수진, 조은하, 성지은 (2021). 비대면 동사 이름대기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자극 제시 유형에 따른 비교. *언어치료연구* 30(2), 87-97.
- Apel, K., Diehm, E., & Apel, L. (2013). Sing multiple measures of morphological awareness to assess its relation to reading.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33(1), 42-56.
- Berninger, V. W., Abbott, R. D., Nagy, W., & Carlisle, J. (2010). Growth in phonological, orthographic, and morphological awareness in grades 1 to 6.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9(2), 141-163.
- Chall, J. S. (1996). *Stages of reading development*. CA: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Cook, V. (1994). Universal grammar and the learning and teaching of second language. *Perspectives on pedagogical grammar*, 25-48.

- Crosson, A. C., McKeown, M. G., Lei, P., Zhao, H., Li, X., Patrick, K., ... & Shen, Y. (2021). Morphological analysis skill and academic vocabulary knowledge are malleable through intervention and may contribute to reading comprehension for multilingual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44(1), 154-174.
- Gibson, F. E., & Wolter, J. A. (2015). Morphological awareness intervention to improve vocabulary and reading success. *Perspectives on Language Learning and Education* 22(4), 147-155.
- McBridge - Chang, C., Wagner, R. K., Muse, A., Chow, B., & Shu, H. (2005). The role of morphological awareness in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in English. *Applied psycholinguistics* 26(3), 415-435.
- Nicoladis, E. (2002). The cues that children use in acquiring adjectival phrases and compound nouns: Evidence from bilingual children. *Brain and Language* 81(1-3), 635-648.

Abstract

Comprehension of Han-ja Prefixes in Kore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ark, Yunhee^{**} (Dankook University)

Hwang, Mina^{***} (Dankook University)

Kim, Garim^{****} (Dankook University)

Purpose: Morphological awareness is crucial for expanding vocabulary during development, as approximately 70%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Han-ja words, in which each syllable carries meaning.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se prefixes can enhance vocabulary knowledge. **Method:**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Han-ja prefix understanding among 60 students: 20 each from 3rd and 5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1st grade in middle school. Our research involved two tasks: judging Han-ja prefixes with opposite and different meanings, with 61 prefixes in total.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ores by grade, which confirms that higher grades had a better understanding of Han-ja prefixes. Third graders achieved less than 50% correct answers, thereby indicating that younger students are still developing their semantic abilities for Han-ja prefixes. The developmental gap between 3rd and 5th graders was larger than that between 5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and 1st graders in middle school, which suggests intensive development occurs between lower and upper elementary grades. **Conclusion:** Our finding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morpheme recognition in vocabulary learning, and suggest that Han-ja prefix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from elementary through middle school.

Key words : Han-ja words, Han-ja prefixes, Comprehension of Han-ja Prefixes, Morphological awareness, Vocabulary

게재 신청일 : 2024. 06. 24

수정 제출일 : 2024. 07. 22

게재 확정일 : 2024. 07. 22

* This article wa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Dankook University (2024).

** First author

*** Co-author

**** Corresponding author (slprim@dankook.ac.kr)